

火災事例

이번 호에서는 延燒火災를 다룬다.

'82年度 特殊建物 罹災分析結果에 따르면 全國의 特殊建物 火災原因 중 他建物로부터 延燒에 의한 火災事故는 全體件數 250件 중 24件으로서 9.6%를 차지하고 있으며 原因別로는 세 번째로 높은 順位를 보이고 있다. 이러한 추세는 '78年 以來 계속되어 오고 있는 데 대하여 安全點檢時 指摘된 延燒防止를 위한 施設의 改修는 좀처럼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.

이와 같은 結果는 곧 隣接建物 相互間의 延燒防止施設이 火災時 얼마만큼 重要的 役割을 하는가를 뜻하고 있으며, 換言하면 우리가 安全點檢時 指摘하는 “隣接建物로부터의 延燒危險” 事項에 대한 重要性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.

- 罹災建物 : 신영 빌딩, 한남 빌딩, 명동의류(상가) 건물, 홍화빌딩, 태평양 빌딩 (5개 건물)
- 所在地 :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
- 火災日時 : 1983년 8월 17일 22:20
- 被害部分 : 全 燒損 - 신영 빌딩, 한남 빌딩, 명동의류(상가) 건물
 部分燒損 - 홍화 빌딩, 태평양 빌딩
- 發火場所 : 신영 빌딩 2층 금은 세공 작업장
- 火災原因 : 漏電(推定)
- 火災發見 : 신영 빌딩 내 2층 입주자
- 消火作業 : 消防車 59台 (지휘차, 高架사다리車 포함) 出動하여 注水消火
- 評價 : 延燒는 뒷 페이지의 그림에서와 같이 發火建物로부터 木造슬레이트 지붕 建物쪽으로 進行되었다.

불길은 주로 창문과 처마를 통하여 옮겨 붙었는데 이렇게 延燒擴大가 容易했던 것은 첫째로 隣棟間隔이 좁은 것(1~2m)을 들 수 있고, 둘째로 延燒된 建物들의 內裝이 可燃性材料로 되어 있었으며, 셋째로는 建物間에 防火措置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. 게다가 바람이 延燒 進行方向으로 불었던 것도 한 가지 要因으로 作用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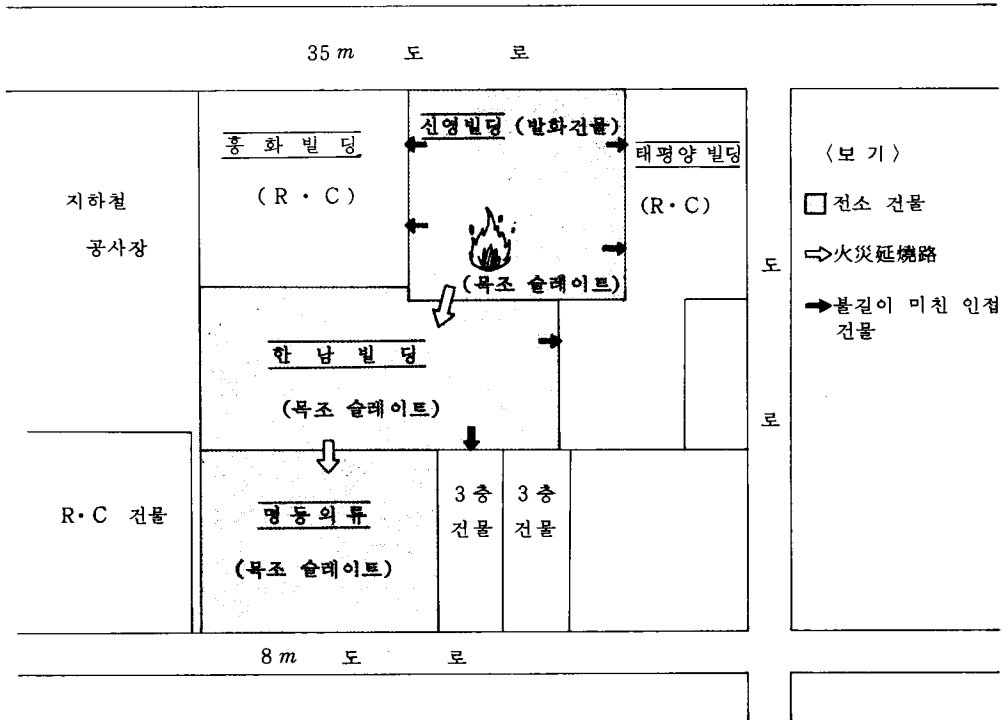
한편 發火建物 양쪽에 있는 2個 建物は 모두가 R·C 슬라브 建物로서 그 중 左側의 홍화 빌딩은 可燃物質과 延燒通路가 없어 被害部分이 일부 外壁의 煙煤汚損에 局限되었으며, 右側의 태평양 빌딩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온 불길의 可燃性 內裝材를 태워 일부 층이 燃燒되는 被害를 입었다.

이와 같은 몇 가지 狀況만으로도 延燒危險이 있는 隣棟間의 防火措置에 대한 事項은 點檢時 看過해서는 안될 重要的 要素임을 알 수 있다.

- 點檢內容 :
 - 신영 빌딩 - 없음
 - 한남 빌딩 - (요망) 內裝材 不燃化
(참고) 木造지붕을 耐火構造로 改修, 隣接建物로부터 延燒憂慮있음, 自探設備 地區警鐘 補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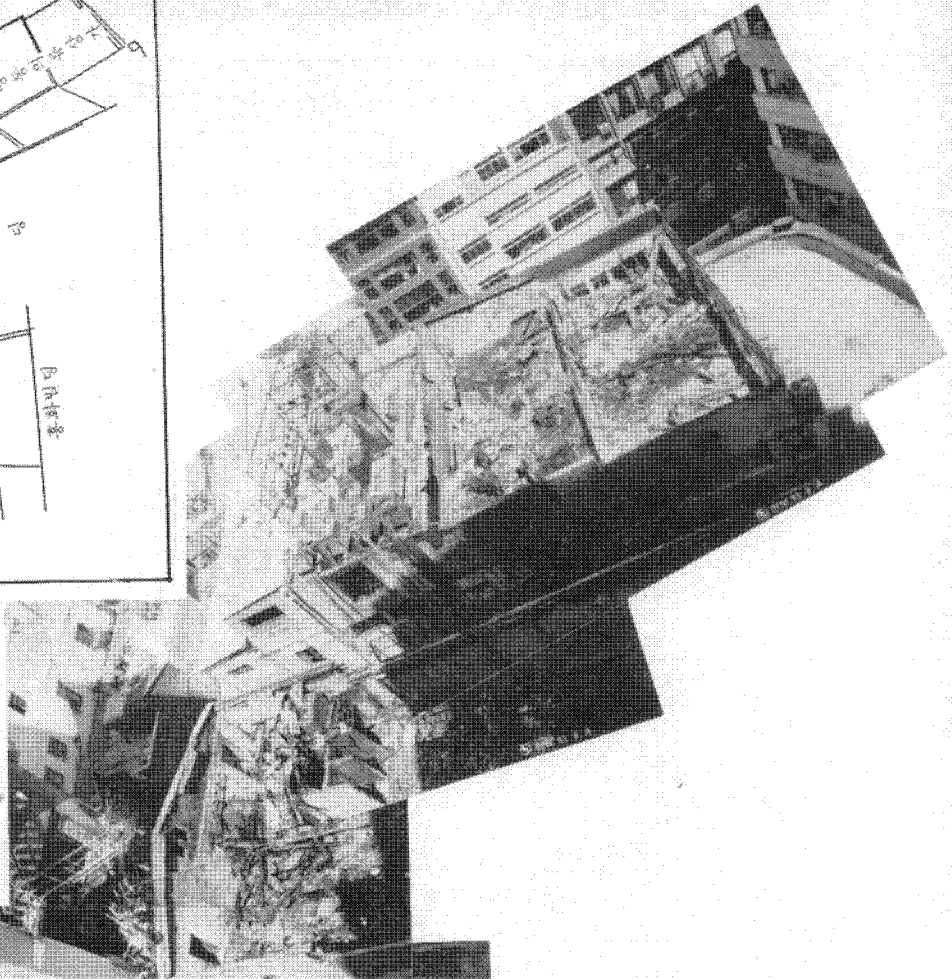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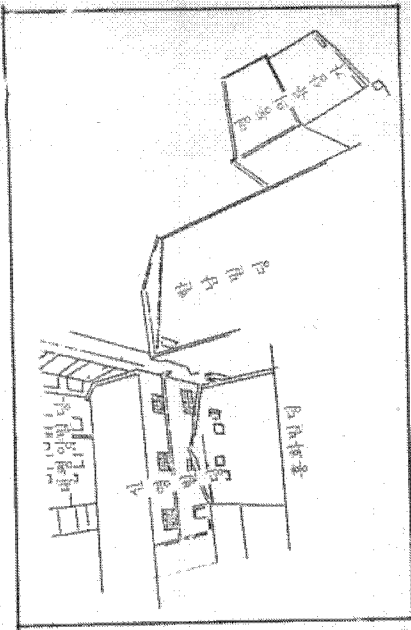
- 명동의류(상가) 건물-(참고) 消火器 再充藥 및 分散備置, 4層 天井은 延燒防止措置 및 內裝材 不燃化
- 흥화 빌딩-(참고) 內裝材 不燃化, 自探設備의 地區警鍾 및 일부 回路 補修, 屋內消火栓 露出配管 保温措置 및 地下1層 新設, 發電室 防火區劃
- 태평양 빌딩-(요망) 內裝材 不燃化
(참고) 特別避難階段 및 非常用 昇降機 設置, 自探設備 導通試驗 不良回路 補修, 屋內消火栓 露出配管 保温措置

罹 災 狀 況 略 圖



화재는 예고없다

점검하여 예방하자



延燒된 建築物

* 사진은 이어 붙인 것임